

정부와 민간부문 부채 현황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부채 규모와 수준은 증가하고 있다. 먼저 국가부채를 보자. 국가채무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채무(D1)와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2)가 있다. 정부가 밝힌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D1기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3년에 50.4%로서 이제까지 나름 경계선으로 여겨왔던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IMF가 집계한 D2기준의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55.2%로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면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어떤가? 한국은행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2023년 2734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GDP 대비로는 122.3%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부채 또한, 2023년 2246조 원으로서 GDP 대비 105%

로 매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정부, 기업, 가계 채무를 합쳐 보자. 정부 부채는 보수적으로 D2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233.7조 원이고, 여기에 기업과 가계부채를 모두 합치면 총합계가 무려 6213.7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를 2023년 총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채규모는 1.25억원이 된다. 과히 부채 공화국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물론 혹자는 “국가채무 비율이 우리보다 유럽이나 일본이 더 심각한 100%를 상회한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기업 및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신용대출이 부동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은행권에 대해 차입자의 주택담보와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부작용으로 부동산구매와 무관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신규대출이 막혀 시름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2023년 정부와 민간의 부채가 GDP 대비 278%라는 사실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의미를 몇 가지 보자. 첫째는 부채 규모가 크더라도 자금이 생산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입되고, 경제 신장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과도하게 높은 부채 수준은 결국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 경제에 주는 외부충격이 매우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 부채는 은행권도 수익을 위해 제공한 부채이므로, 고정이자여신에 대해 채권자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채 책임의 일부를 지게 하는 것이다. 채무조정에 의한 부채감축이 일시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는 긍정적이다.

셋째는 경제 신장을 위한 혁신경제의 강력한 추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벤처생태계가 현재의 흉내 내기식에서 벗어나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대수술이 시급하다. 채무조정과 혁신벤처생태계 작동이 여발통치(如拔痛齒)와 같은 묘수는 아니지만 진정한 부채해법이 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불똥 해결은 우리의 몫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결국은 먹고사니즘 문제였다. 팬데믹으로 하루아침에 밥그릇을 빼앗긴 그들은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분노했다. 불똥은 미국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튀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관세를 높이고, 더 이상 외국인이 미국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민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렇게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원화값 급락)했다. 7월 원·달러환율은 전 날보다 4.9원 상승한 1401.1원으로 출발해 오전 9시 30분께 1404.5원까지 상승했다. 장중 1413.5원까지 올라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만에 최고치다.

이처럼 치솟는 환율은 수출기업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국내 생산비중이 높고 해외 판매 시 달러 결제가 이뤄져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웨이퍼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항공 및 정유업계는 환차손의 부담을 안는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280억 원의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정유업계는 원유 수입 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선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도 더뎠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건 관세 인상과 이민제한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트럼프의 인하요구에 답할지는 만무하다.

대선을 지켜보면서 이수영 시인의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떠올랐다.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 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나는 절정 위에는 서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비켜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미국의 경기가 어려워진 직접적인 원인이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 때문인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다 차지해서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어찌됐든 불똥이 튀었다면 ‘불똥이 튀어서 놀랐다’가 아니라 불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율리스크 등 단기적 변동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형 시장을 개척하는 등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8일 (음 10월 8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48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60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72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돌리니 꾸준히 노력. **84년생** 공연한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도록.
- 37년생** 과대포장은 실망이 따른다. **49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따사롭게. **61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73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 하루. **85년생** 지금의 재물은 과거의 고난에서 비롯.
- 38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5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척지에 도착하는 날. **62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74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뎌야 한다. **86년생** 여러 사람의 직언이 부담스럽다.
- 39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는 날. **51년생** 생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63년생** 된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75년생** 가장 큰 미덕은 결혼을 미루지 말고 가정을 갖도록. **87년생**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낼 수.
- 40년생** 공연한 걱정은 일에 차질을 빚는다. **52년생** 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도 더럽고 안타깝다. **64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76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88년생** 작은 실수를 확대하여 비판 말라.
- 41년생**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 **53년생** 물과 사람은 생명과도 같으니 자연을 사랑하라. **65년생** 허풍장자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 남매. **77년생** 지나온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89년생** 먼저 10년 전 일을 생각 해봐라.
- 42년생** 대대손손(代代孫孫) 이어지는 재물이 있겠는가. **54년생** 땅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해진다. **66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78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90년생** 재개발 소식 오니 외출은 다음.
- 43년생**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찌됐다. **55년생** 불면증의 원인은 음식과 취침에 있을 것. **67년생** 오랜 직언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79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 된다. **91년생** 투자 권유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
- 44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56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 **68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80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92년생** 좋은 습관은 오래 간다.
- 45년생** 뭉치면 잘될 확률이 높아진다. **57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69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1년생** 결과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 나가보자. **93년생** 아직도 문은 열려 있는 시간이다.
- 46년생** 아직 시간과 희망이 있다. **58년생** 우물가에서 승승 찾지 말고 순서대로 행동. **70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82년생** 운명의 코드는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94년생** 반드시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
- 47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59년생** 살게도만 있다고 집이 지어지겠는가. **71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83년생** 열심히 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 **95년생** 연애사 내지는 결혼생활의 복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김상회의四季 유병장수라는 역설

옛날에는 무병장수를 덕담으로 건네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지만 요즘은 유병장수라도 즉 어떤 병을 갖고 있으면서 오래 산다. 병이 있으면 건강을 더 관리하고 조심하기도 하는데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강한지 알면서 관리를 해나감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몸에 대해 잘 알 수는 없다. 몸은 타고난 체형과 체질이 평생을 간다. 어떻게 타고났는지를 아는 게 우선이다. 사주팔자는 개개인이 타고난 자연의 섭리를 알려준다. 사주를 분석하면 오장육부의 약하고 강한 부분은 물론이고 조심해야 할 질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질병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보는데 사주와 대운 그리고 세운의 음양오행을 배합해서 어떤 질병에 취약하고 강한지를 판단한다. 오행 중 목기운은 간 담 쓸개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주의 오행 중 목이 약하면 간과 담이 약하다. 반대로 목이 태과하면 간과 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병을 부르기도 한다. 술을 많이 마셔도 끄덕없다고 자신감을 보이다가 간질환을 얻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화火는 심장 소장 등 순환기 계통과 관련이 있다. 사주에 화가 많으면 몸에 열이 많고 심장계통이나 혈압 관련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 몸의 오장육부는 오행의 생극제화와 음양 조화가 적당해야 병이 없다. 음양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부족해서 조화를 잃으면 질병이 반드시 생긴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남는 부분은 털어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유전적이든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 이상 신호가 올 때가 있다. 무엇이 부족하고 넘치는지 알 수가 있다면 그에 따라 기운을 조절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1	7		4	2		9		3
	3					9		
		9						7
			4	5				2
	6						9	
7						6	4	
2						5		
			2				3	
6	5		8	7			2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2	1	4	8	9	6	9
6	9	9	1	2	4	7	8
8	4	7	6	9	9	1	2
1	8	7	9	9	6	2	9
9	6	4	2	7	8	1	9
2	9	9	1	4	9	7	8
4	7	8	9	1	6	2	9
9	1	2	6	9	4	8	9
9	9	6	8	2	7	9	4

			2			4			8
1								4	
	8	4	6	1				9	
2							5		9
		8					7		
3	9								6
		2		6	7	3	1		
		3							8
	6		3		5				